

2023. 6. 22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관광정책과장	조 성 호	2133-2805
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관광정책팀장	김 가 영	2133-2807
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3매

담 당 자	노 혜 정	2133-2811
	전 진 호	2133-2809

함께 만드는 관광 친화도시 서울, 관광 유공시민 2인 표창

- 서울시, 6.21.(수) 열리는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막식에서 관광 분야 유공시민 표창
- 고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과 지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운 시민 2명
- 개막식에 참가한 해외 관광업계 바이어에게 안전한 도시 서울의 매력 알려

□ 서울시는 오는 6.21.(수) 18시 DDP(동대문디자인플라자) 아트홀2관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트래블마트(SITM) 개막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과 가방을 찾아준 공항버스 기사 장권순 씨와 시민 김복현 씨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서울국제트래블마트(SITM)는 6.20.(화)부터 6.24.(토)까지 5일간 DDP 및 공식 홈페이지(<http://sitm.or.kr>)를 통해 온·오프라인으로 열린다. 국내외 관광업계 768개 업체가 참가하는 한국 대표 트래블마트로 B2B 비즈니스 상담, 관광홍보부스, 서울관광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. 21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관광업계 해외 바이어 135명, 국내 셀러 72명 등 200여 명 내외 관광업계 종사자가 참석한다.

□ 서울시는 고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과 가방을 획득한 후 자진신고 또는 안전하게 보관해 무사히 분실물을 되찾을 수

있도록 한 장권순씨와 김복현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. 안전한 서울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인 점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서이다.

- 장권순 씨는 (주) 한국공항리무진에서 근무하는 공항버스 기사로 지난 5월 7일(일)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발견한 뒤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. 지갑의 주인은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으로 300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한 후 서울 중구 서소문 파출소에 신고한 상태였다. 관광업계 종사자의 투철한 직업윤리 덕분에 관광객은 웃으며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.
- 김복현 씨는 지난 5월 16일(화)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계단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가방을 우연히 발견해 근처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. 이 가방을 잃어버린 중국인 관광객은 신고 후 50여 분 만에 다시 가방을 찾게 되어 놀라움과 함께 김복현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- 외국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선진 관광도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. 이번 두 사례는 그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, 카페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놓아두어도 도난당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.
- 서울시는 두 분의 선행이 안전한 관광도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시민표창을 통해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. 또한

개막식에 참석한 관광업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서울이 여행하기 안전한 도시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.

- 이랜드 크루즈(대표: 박동진)는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유공시민 2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한강유람선 승선권과 식사권을 선물했다.

-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두 분의 모범적인 시민의식과 선행이 안전한 도시, 서울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